

# 별교고, 2026 대입 서울대 2명·의치대 등 10명 합격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체계적 진로·학력 관리 성과 지자체·교육청 지원, 학생 학업 역량 강화 실질적 도움

보성 별교고등학교(교장 박춘동)가 2026학년 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2명과 의대 등 메디컬 계열 10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별교고는 이번 대입에서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점단융합학부에 각 1명씩 총 2명을 합격시켰다. 이와 함께 전남대·조선대·원광대 의대, 전북대 치의학과 등 메디컬 계열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진학 실적도 두드러졌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 27명이 합격했으며, 전남대·전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에는 46명이 진학했다. 수능 응시생이 102명에 불과한 농

어촌 일반고라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별교고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체계적인 진로·학력 관리의 결과로 분석된다.

학교는 ‘질문하는 학교’,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하브루타 수업을 중심으로 창의력과 협력 기반 문제해결력을 지속적으로 길러왔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지도와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성장한 역량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담아낸 점도 대입 경쟁력 강화에 주효했다.

여기에 교과 담당 교사들의 밀도 있는 수업과 학습 관리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높은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도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 보성군청의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과 전남도 교육청의 ‘하이플러스(High Plus) 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은 학업 역량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별교고는 2026년부터 IB(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로 선정돼 글로벌 표준의 탐구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논술형 사고력과 대학 면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춘동 교장은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편성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를 통해 탄탄한 학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농어촌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일반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입시 지도 시스템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보성 별교고등학교가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합격생 2명, 의대 등 메디컬 계열 10명을 배출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별교고등학교 교육활동 모습.

## 여수시, 공공 체육시설 ‘웅천국민체육센터’ 개관

### 건강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대 증가하는 체육 수요 적극 부응

여수시는 최근 시민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건립한 ‘웅천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성황리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개관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사업 경과보고, 축사,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웅천국민체육센터는 이순신공원 내에 연면적 249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 원, 특별교부세 6억원, 시비 60억원을 포함해 총 1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요 시설로는 25m 4개 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여수시는 최근 시민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건립한 ‘웅천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

특히 수영장은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3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정식 개관을 위한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웅천국민체육센터 개관이 시민의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라며 “시민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 서구의회는 13일 ‘서빛마루 시니어 수채화 전시’를 개최했다.

### 광주 서구의회, 서빛마루 시니어 수채화 전시

#### 27일까지 청사 1층 로비서

광주 서구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서빛마루 시니어 수채화 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시는 의회 공간을 구민 중심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 자생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수채화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예술로 이어가고 있는 시니어 작가들의 정성과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 예약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전시가 의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예술 활동을 연계한 문화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어르신들의 열정이 담긴 수채화 작품들이 의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문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친근한 의회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뉴스코해외봉사단 25기 예비 단원들이 1차 워크숍 참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국뉴스코해외봉사단 예비 단원 워크숍 진행

#### 대학생 구성 25기…내달 세계 각국에 파견 예정

국내 대표적인 대학생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 ‘국뉴스코해외봉사단’(국뉴스코)이 올해 2월 각국 파견을 앞두고 25기 최종 워크숍을 열고 있다.

2002년 출범한 ‘국뉴스코’는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을 100여 개국에 파견해 누적 1만여 명이 참여한 해외봉사단이다. 1년간 한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 단순 봉사를 넘어, 생활·교육·문화 교류를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한다.

국뉴스코로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국제 청소년연합(IYF)의 월드캠프, 국뉴스코 워크숍을 통해 ‘마인드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파견돼 이를 바탕으로 교육봉사, 문화 교류, 민간외교를 수행한다. 국뉴스코 워크숍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12월 31일~1월 3일), 2차(7~10일), 3차(14~17일) 워크숍을 통

해 기본 교육을 받은 예비 단원들은 3차 워크숍 기간인 16일 수료식을 갖는다. 이들은 오는 2월 세계 각국으로 파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뉴스코는 앞으로도 대학·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봉사·리더십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 1차, 2차 예선은 지난 10월과 11월 광산 소재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파견됐던 24기 단원들이 순차적으로 귀국하고 있다. 1여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단원들은 오는 2월부터 광주를 포함해 서울, 부산, 대전 등 10여개 도시를 순회하며 귀국론서 등이자 생생한 활동보고회 ‘국뉴스코 페스티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김이제 호남대 교수 ‘국토교통 R&D 20선’ 선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

#### 특별부문 청년인재 분야 수상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이제 교수가 ‘2025년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돼 최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 이노베이션데이’에서 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에서는 국토기술 분야 8명, 교통기술 분야 10명, 특별부문 3명 등 총 21명의 연구자가 우수성과로 선정됐는데, 김이제 교수는 특별부문 청년인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BIM 도면 자동 생성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성공’ 성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해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과제를 선정·시상하는 제도이다. 김 교수가 참여한 연구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건축 설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도면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핵심이다.

BIM 모델로부터 도면을 자동 생성하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과 Proximal Policy Optimization(PPO)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해, 실시간 단계 납품 수준의 BIM 도면을 기존 수작업 대비 작업 시



호남대 김이제 교수(오른쪽)가 최근 ‘2025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됐다.

간 93.26%, 작업량 94.54%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당 연구는 BIM 기반 건축설계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목표로, 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건축설계 실무자들과의 협의체 구성과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도 입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성과는 국토교통부 R&D 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RS-2021-KA163269)’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



광양시 주민자치회는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출범식을 개최했다.

###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 방안 발굴·의사 결정”

#### 광양시, 2027년까지 2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광양시가 올해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2년 간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발전을 위한 일로 지자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주민자치센터나 공중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수임·수탁 수행,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협오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등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마을 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마을 신문, 소식지 발간, 생활협동조합 운영, 동호회, 스포츠 활동, 자율방범 및 안전회가 활동, 등·하교길 안전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해 자치 계획 수립, 활동 평가 심의·결정 등을 하게 된다. 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